

# 흔들리며 걷는 길!

## -예레미야 37:11~21-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가운데  
온 마음으로 wholeheartedly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평안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들이 뒤쫓무니를 따라다닙니다.

### ▶ 관찰하기

예레미야는 고향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아 매를 맞고 토굴 속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비밀리에 그를 불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신경이 쓰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돌려보내지 않고 경호대 둘에 있게 합니다.

내 안의 육적인 생각은  
평안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안을  
믿음을 견하게 하고  
Be strong and do not give up  
우상을 제거하고  
love the established idols  
예배를 회복하라!  
Repaire the altar of the LORD

1. 베냐민 땅으로 가던 예레미야는 어떤 오해를 받았나요?(13-14절) 그곳의 관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나요?(15-16절)

2.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 비밀리에 물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나요?(17절)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현실과 어떻게 달랐나요?(19절)



### ▶ 답아가기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거침없이 전한 예레미야처럼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상황이 찾아와도 담다하게 전해야 할 말이나 믿음의 표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http://cartoon.gouppeople.com